



정읍시의회,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실시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제807회 임시회 기간 중 21일부터 22일까지 위원회별로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정읍근대역사관, 북부 노인복지관, 무성사원 유교수련원 등 8개소를 방문했고,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사업장,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새암달빛광장 조성사업장 등 9개소를 방문하여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개장한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안전 관리와 타 시군에서도 방문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고, 숲터생태관광 방문자센터에 대해서는 해설형 숲 체험을 더욱 활성화하고,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 발굴을 강조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동국대 사대부속 금산고 황선민, 씨름 동메달 획득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부산 BEXCO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금산고등학교 3학년 황선민 선수가 씨름 70kg 경장급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황선민 선수는 그동안 꾸준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 기량을 쌓아온 선수로, 이번 대회에서 치열한 예선을 뚫고 준결승까지 오르는 저력을 보였다. 비록 결승 진출에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씨름을 시작한 이래 첫 입상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며 학교와 김제의 명예를 드높였다.

황선민 선수는 "매일 새벽과 밤과 후에 이어진 훈련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도해주신 감독님과 함께한 팀원들의 응원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도동동, 독거 어르신 생신 축하 케이크 전달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생신을 맞은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케이크를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사업은 관내 뽕국은사랑(대표 이상호)의 재능기부를 받아 가족이 멀리 있거나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를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 주는 사업으로, 1인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과 연계하여 가정방문 시 생일을 맞은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에게 케이크를 전달하고 생일을 축하해 드리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아침밥 먹고 학교 가자' 조식 지원 캠페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침밥 먹고 학교 가자' 조식 지원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의 아침 결식이 일상화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밝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조식지원 사업은 청소년이 규칙적인 아침 식사 습관을 갖고, 학교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도록, 김제시 교육가족과,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내 중·고등학교, 1388청소년지원단, 부모서포터즈가 함께하는 지역 협력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김제시 관내 6개교가 2학기 시범학교로 선정됐으며, 23일 덕암중·덕암고·덕암정보고를 시작으로 오는 29일 김제중학교, 11월 12일 김제고등학교, 11월 21일 김제중앙중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에는 1388청소년지원단과 부모서포터즈가 참여해 학생들에게 간편식과 음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포스코이앤씨 직원 봉사활동 '주목'

24~26일 개최 제15회 얼굴 없는 천사축제서... 직원 20여명 교대로 참여

제15회 얼굴 없는 천사축제가 24일부터 26일까지 전주 노송동 일대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축제는 전주시 노송동 인근 아파트 시공현장 직원 수십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맡아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서부사업단(단장 김명준)의 전주시지촌 재개발 현장에서는 천사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직원 20여명이 업무시간 등을 고려, 교대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이들은 축제개막 개막식 사전준비 및 질서유지와 함께 축제현장방문 점심식사 등 배식작업을 시작으로 행사 종료시까지 정리정돈을 실시할 예정이다.

축제위원회에서는 첫째날 개막식과 어르신 체험행사, 먹거리 장터가 열리고 둘째 날은 어린이·청소년 문화공연과 글·그림 사생대회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은 학생작품 전시와 지역주민 공연 등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얼굴 없는 천사는 25년간 매년 수천만 원의 성금을 기부해 오고 있다. 천사가 놓고 간 누적 성금은 10억

/권희성기자



4000여만원에 달한다.

얼굴없는 천사를 기리기 위해 올해 설 명절에는 취약계층 185세대에 3700만원, 노송동지역 초·중·고 20명 학생들에게 장학금 1360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 추석명절에도 79세대 지원과 장학금 지급했다.

노동식 축제 조직위원장은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말했다.

/권희성기자

전주YMCA, 창립 100주년 기념식 개최

전주YMCA(이사장 김종기)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24일 오후 5시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주YMCA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이 아닌, 10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뜻깊은 자리다.

'겨레와 함께 100년, 지역과 함께 100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은 1925년 기독교청년들의 자발적 운동으로 출발한 전주YMCA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이룩한 한 세기의 이야기를 되새기고, 다시 청년의 정신으로 미래를 열어가자는 다짐을 담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시대의 격랑 속에서도 YMCA의 이름으로 헌신했던 회원·청소년·지도자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영상과 함께 소개되며, 이어 '창립 100주년 YMCA 평화산단문'이 낭독되어 새로운 세대와 함께할 평화·연대·자속가능성의 약속을 천명한다.

김종기 전주YMCA 이사장은 "극심한 혼란기에도 꺼지지 않았던 기독교청년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선배들의 희생이

오늘의 YMCA를 만들었다"며 "이번 100주년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평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YMCA는 지난 100년 동안 전북 사회운동의 중심이자 시민정신의 산실로 자리해 왔다.

일제강점기에는 이상재·조만식 등 독립운동 선각자들과 함께 독립정신을 계승했고, 해방 이후에는 민주화·인권·환경·청소년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었다.

특히 100주년을 맞아 전주 YMCA는 본관을 리모델링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평화센터'로 새롭게 개방했다.

지난 9월 개소한 이 공간은 시민교육·청소년활동·평화포럼 등 열린 소통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이 뜻을 모은 기금으로 △청소년 피스메이커 육성 △지역 평화운동 강화 △순천YMCA 창립 지원 △YMCA 전문지도력 양성 등 지역 기반의 시민운동과 청소년운동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오만호 기자

전북은행, 파송지역아동센터에 'JB희망의 공부방' 개소

전북은행이 지역 아동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또 한번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22일 전주시 파송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10호'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개소한 파송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아동 돌봄과 정서 지원을 펼쳐온 복지기관으로, 현재 37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센터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전북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배를 새로 하고 낡은 책상과 의자, 책장을 교체해 깔끔하고 쾌적한 학습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아이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노후 화장실에는 운수기와 수납장 칸막이 등을 설치해 위생적이고 편리한 환경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러한 개선에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과 관계자들은 큰 호응을 보였다.



이날 오픈식에는 김명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최명권 전주시의회 의원, 한경순 파송지역아동센터장, 오현권 전북은행 부행장, 정영민 전북특별자치도청지점장, 조인성 전주시청지점장 등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오상근 기자

황산토종정육식당, 남원 운봉읍에 나눔의 손길

남원시 운봉읍은 관내 황산토종정육식당 신명철 대표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300만 원을 기부하는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서비스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명철 대표는 착한 가게 정기기부와 더불어 다양한 후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은주 운봉읍장은 "신명철 대표님의 지속적인 기부와 나눔 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부금이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소중히 쓰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향동, 더리터광한루점에 착한 가게 현판

남원시 죽향동 사회보장협의체는 1일 1가구 소통행정 일환으로 협의체 복지허브화 연합모금사업 정기나눔에 동참한 더리터광한루점(대표 이경진)에 착한가게 32호점 현판을 전달하였다.

나눔에 동참한 후원자들의 재원은 죽향동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나눔·공유 사업에 소중히 쓰일 예정이다.

이경진 대표는 "동 허브 사업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임점숙 동장은 "이경진 대표께 더욱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죽향동 지역사회보장사업 확대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남도국제미식박람회 성공 챌린지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은 23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남도 음식문화의 세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며,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캠페인이다.

박병래 의장은 김제시의회 사백현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남도의 미식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축제가 되길 바라며,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병래 의장은 다음 주자로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을 지명하며 응원의 바를 이어갔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지난 1일 막을 올려 오는 28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리며, 남도 미식의 세계화,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의 교류 확대를 주제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학술행사 등이 진행되며 한국 미식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 송천1동 주민자치위, 지역 청소년에 장학금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하재우)가 지난 21일 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꿈꾸는 청소년 장학금" 사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하며 청소년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응원하는 송천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적인 특화사업이다.

이번 장학금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위원회는 이날 성실한 학교 생활과 모범적인 태도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청소년 5명을 선정해 상·하반기 각각 3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하재우 주민자치위원장은 "이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주민자치위원들과 학부모, 학생 등이 함께 지리해 따뜻한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이에게도 큰 용기와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천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비롯해 교육·복지·문화 분야의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남원 덕과면, '해피엔딩 덕과네 장수사진관' 추진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응원하기 위해 '해피엔딩 덕과네 장수사진관'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고령 어르신들에게 장수 사진을 무료로 촬영·제공함으로써,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남기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덕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특화사업이다.

덕과면은 평소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사진관을 찾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 사진관의 재능기부와 협의체의 예산 지원을 통해 맞춤형 촬영을 진행, 인화된 사진과 액자를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

박종만 덕과면장은 "어르신들이 평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하며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의미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